

'올다무'가 쏘아올리는 희망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경제포커스

이인열

산업부장



봤을 땐 일본 기업인 줄 알았다. 유니클로의 '동생' 정도 알고 보니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란 뜻이었다. 창업자 조만호(42)가 고3 때 프리랜서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패션이 주력인 무신사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중소 브랜드를 입점시켜 매출을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젊은 디자이너 등을 발굴해 'K패션의 TSMC' 격인 팬코 등에 맡겨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다. 팬코는 베트남, 미

재벌·80대 기업인·MZ의 혁신 K뷰티와 K패션 부흥 이끌어 세상에 사양 산업은 없다 단지 사양 기업만 있을 뿐이다

안마 등 공장에 1만6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의류 위탁 생산 업체로 한국 산업화의 노하우를 간직한 기업이다.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만 8000여 개. 그중 매출 10억원 이상이 500여 개, 100억원 이상은 50여 개다. 매출 1000억원을 넘긴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상장을 추진 중이다. 무신사 본사엔 기획 및 디자이너 인력만 50여 명이다. "1조원 넘는 업체를 만들어 볼 거야" 20년째 전 무신사 창업자가 주변에 했던 말이 다. "꿈은 이뤄진다"는 말은 이럴 때 쯤

라고 있는 말 같다. CJ올리브영(올영)은 재벌인 CJ그룹 계열사로, 이젠 그룹 내에서 덩치로 넷째, 성장세는 단연 1위다. 미국식 드로그스토어를 표방했는데 10년 이상의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K뷰티의 영역을 발굴해 초고속 성장 중이다. 올영에도 성공 신화가 넘친다. 입점 업체 중 올영에서만 연 매출 100억원 돌파가 100개를 돌파했고, 그중 3개 브랜드는 '1000억 클럽'에 가입했다. 다이소 역시 1000~5000원짜리 물건만 찾아 영업이익률 9.35%로 이마트(0.16%)와 쿠팡(1.46%)을 압도한다. 요즘은 10대를 상대로 '가성비' 화장품까지 팔았다. 올다무의 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알테쉬'로 대표되는 값싼 중국산의 공세,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 K제조업은 종말을 고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 주역은 젊은이다. 올영에 납품 하러 가면 심사역들이 모두 20대라서 놀란다. 무신사 기획자 대다수가 2030들이다. 이들이 쇠락할 거라던 K패션과 K뷰티를 다시 키워낼 줄이야. 이들 기업의 탄생 배경은 재벌 계열사, 유훼 여든을 넘긴 기업인, 고3 때 창업한 40대 창업자 등 제각각이다. 올다무에서 또 하나 배운 건 사양 산업은 없다는 것이다. 사양 기업만 있을 뿐이지.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97] 선택권이 있다면 더 비극적인가?

So does that make it more tragic?

"우연이란 것은 없다. 그것은 이름이 잘못 붙은 운명일 뿐이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ccident: it is fate mis-named)." 니콜레옹의 말이다. 겉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모두 운명이라는 뜻이다. 영화 '유전(Hereditary·2018·사진)'은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비극적 사건들이 결국 한 인물의 운명으로 판명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외할머니 장례식에 다녀온 피터(엘릭스 울프 분)는 그 후로 늘 멍하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있다가 교사의 질문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다. 교사는 헤라클레스의 최후를 이야기하며 그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어떻게 묻는다. "헤라클레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더 비극적일까? 아니면 덜 비극적일까?(So does that make it more tragic or less tragic that if he has a choice?)" 피터는 더 비극적이라고 답한다. "모든 게 필연이라면 캐릭터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

었다는 얘기니까요(Because if it's all just inevitable, then that means that the characters had no hope)."

그리고 뭔가 씩 웃어 더욱 비극적인 주장을 펼친다. "그들은 애초에 희망이 없었어. 모두 그저 끔찍하고 냉혹한 시스템에 있는 무기력한 장기 말에 불과하니까요.(They never had hope be-

cause they're all just like hopeless - they're all like pawns in this horrible, hopeless machine)." 선택권이 있음에도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인다면 그보다 비극적인 일이 없다. 이 수업 시간에 한 피터의 답변은 마치 불길한 전조처럼 동생을 태우고 가는 자신의 차 공무리를 쫓아간다. 영화 번역가

社 說

安 후보 "계엄, 대국민 사과하자" 타 후보들 호응을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2차에 올라가며 경선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탄핵 찬반 후보가 2대2로 균형을 이룬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인지 등 미래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자고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그는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국민의 의지로 모이고 있다"고 했다.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도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 혼란과 이재명 독주 현상은 계엄이 불러온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금의 조기 대선도 계엄 때문이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

들은 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여기에서부터 새출발이 이뤄질 수 있다.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승적으로 4명 후보가 모두가 한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경선은 '키높이 구두' 같은 수준 이하의 공방이 아니라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하고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임 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다음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이뤄진다. 그러나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후보들이 탈락하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누가 소수 지지층이 아닌 국민 다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변화의 의지를 밝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야만 국힘에 작은 희망이라도 있을 것이다.

'법' 자만 나오면 흥분하고 달려드는 민주당

대법원이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사건 배당 당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새 두 차례 심리를 하는 것은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 재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변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어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대선 관여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동조했다. 민주당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일부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대법의 신속 재판을 '대선 개입'으로 몰고 있다.

이 재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을 했다. 1심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한 것 등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행정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려 있는데 판결은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어느 쪽이 맞는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혼란과 논란은 대법원만이 정리할 수 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출마 자격 논란은 없어진다. 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만큼 이 후보는 더 유리해질 것이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이 다시 재판해야 한다.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 후보에게 여론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흥분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왜 대법원에 상소지를 돌우냐. 민주당은 '법' 자만 나오면 흥분하고 달려드는 게 습관처럼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대법원이 빨리 판결할수록 빨리 정리된다. 민주당은 대법의 신속 재판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환영하는 것이 맞다.

원전 정책 언급 피한 이 후보, 상식적 판단 하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원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자 일부 환경 단체는 "원전 건설 정책을 계승할 거냐"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 캠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모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중을 유지되 사회협약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현실이다. 전기 에너지를 확보해야 성장하고, 또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원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이 못마땅한 것이다. 이 후보가 이날 공약한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량을 보면 아직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8.1%에 달한다.

석탄 발전을 줄이면 그만큼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아직 10.5%에 불과하고 태양광·풍력 등은 날씨에 따라 변동성도 크다.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전기차 보급 확대처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정책을 펼치려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AI(인공지능) 경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전력 확보다. AI를 적용한 데이터센터는 운용하려면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전력이 3배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정 짓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 혹은 감원전(減原電)을 하자는 것은 AI 경쟁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내에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주장하다가, 2022년 대선 때는 기존 원전은 계속 가동하되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감원전"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후보는 최근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원전 제로화나 감원전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AI 강국이란 목표가 진심이라면 진영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상식적 에너지 정책을 약속하고 지켜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 사법부 자살 막아라... 판사가 역모 조작·사회의 도구인가?

이재명 확정 판결에 달렸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사법의 정치화·이념화·진영화, 구역질 난다
정치 결론 꿰맞춘 법리, 자존심 상하지 않는가?
추상 같은 논리 정연에 품격 높은 판결문 읽고 싶다



▲ 조희대 대법원장. 그가 이끄는 전원 합의체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의해 더럽혀진 대법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다. © 뉴데일리

◎ "이재명 재판 중단 검토"... 원 소리?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전방위화처럼 전원 합의체로 돌렸다.

왜 그랬을까?

일부는 이걸 《이재명에게 불길한 징조》라 해석했다. MBN은 그러나, 반대로 보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개월 전부터 이재명 재판 중단을 검토했다.》

한 나라의 사법부라면, 그것도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라면 마땅히 이재명 재판을 최소한 그토록 질질 끌지는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대 사법부는 실혹 일부 현상이라 해도 그런 《상식》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 사법의 정치화, 해도 너무 하다

《사법의 정치화·이념화·진영화》 때문이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사법의 정치화》가 있었다. 《빅브라더》의 감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시국사건에서 재판부는 《에비》의 강한 눈초리를 느껴야 했다. 지켜본 그대로다.

대법원은 군사재판의 판결을 확정할 때, 그것을 《감히》 뒤집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고문을 받았다고 호소해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다. 소수의견으로 이에 반론한 판사들은 결국은 물을 먹었다. 이 덕택(?)에 국가가 《산입화》에 성공했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 판사의 패거리화 방치할 것인가?

아했든, 그러다가 《민주화》가 왔다. 그러나 《민주화 후의 민주주의》는 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괴상한 방향으로 빠졌다. 《진보 법학/우리법/국제인권법》 운운이 그것이다.

《좌익 법학/좌익 사법/좌익 법조계》가 《좌익 매뚜기 한 철》의 《새 원님》들이 되었다. 이권 카르텔이었다. 법을 권위주의 시대 팽치개 《정치적 도구/이념의 칼/패거리의 무기》로 써먹는다.

그렇다.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 연속 탄핵 때 이 《산판 원님》들은 21세기의 《역모 조작》과 《사화(士禍)》의 최전선 역군이였다. 우익 사범은 2천 명의 병력을 풀어 죽였다. 좌익 사범은 몇 해씩 불구속으로 놔뒀다.

◎ 자살, 일보 직전

이 꼴을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자긍심 높은 법관들은 격심한 《자존심 훼손》으로 고통스러워해야 할지 된다. 그랬으리라 믿고 싶다. 그랬을 것이라 믿는다.

판사들이 온갖 궤변과 억력으로 미리 내려놓은 결론에 판결문을 갖다 맞추는 저 구역질 나는 광경!

《조희대 대법원》이 격분하지 않았다면, 우리 그것을 자살이라 부르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살》!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기로 한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확정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볼 때까지.

김병모 초대 대법원장님, 자유당 말기 유병진-김홍섭 판사님, 굶어보소서, 후배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 류근일

뉴데일리는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4월 22일 게재 되었습니다.

